



출신고교 ( ) 수험번호 ( ) 성명 ( )

〈유의사항〉

- |                           |                                  |
|---------------------------|----------------------------------|
| 1. 시험시간은 120분임.           | 2. 답안에 문항 번호를 쓰고, 한 칸 띠우고 시작할 것. |
|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
| 5. 제목을 쓰지 말 것.            | 6. 답안 작성은 흑색 펜만을 사용할 것.          |

- 다음 〈제시문〉과 (자료)를 읽고, [문제 1]~[문제 3]에 답하시오.

〈제시문 A〉

Social welfare can be established just by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state should provide education, healthcare, unemployment benefits, and old age pensions for all. These are fundamental rights in a humane society. Such state-run welfare services are the property of the n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available to all. They are the physical manifestations<sup>1</sup> of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to each of its members. Thus the state should ensure the welfare for its people. It is a myth that the market can guarantee the welfare. The market cannot replace the active role of the state for social welfare.

- Adapted from Trevor Sather ed., *Pros and Cons*

<sup>1</sup> 표시

〈제시문 B〉

The increasing welfare bill paid by the state distorts the autonomous mechanism of the market. Social welfare can be achieved by the power of the market. The market must be allowed to flourish, and will do so if unhampered<sup>1</sup> by state intervention. The virtues of the market are said to include rational distribution as well as economic growth. Privatization<sup>2</sup> of healthcare, education, and pensions brings competition to the market and leads to better and cheaper services. If left to itself, the market will deliver the greatest good to society. The market can function as a social safety net better than the state. The thesis of the minimal state is closely bound to a distinctive view of the market as a self-generating mechanism.

- Adapted from Antony Giddens, *The Third Way*

<sup>1</sup> 방해받지 않는    <sup>2</sup> 민영화

## (자료 1)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는 국가가 복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사회, 도시, 자유 시장은 역사적으로 거듭된 빈곤과 억압을 퇴치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며 파편화되고 인간존중이 결여된 삶의 방식을 동시에 야기시켰다. 국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다 인간다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는 역사적인 사회병리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사회적 공익을 위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산을 바탕으로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삶의 높은 질적 수준은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들이다. 시장은 자기 규제의 기능이 약하며 자기 이익의 실현을 우선시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녕, 복지는 국가 활동에 의해 좌우된다.

- 빅 조지·폴 월딩,『복지와 이데올로기』/『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 (자료 2)

미국인들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노력을 권장하는 반면 그런 일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고,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빈곤 탈피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으로 빈민만을 구제한다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힘들여 번 소득의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부의 재분배는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 정신을 해치며, 미국적인 성공담의 핵심에 있는 개척 정신을 조롱하는 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사회가 생산하는 부를 분배하는 가장 공평한 수단이 시장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중략) 미국의 경제학자와 공직자들은 유럽 지도자들의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불만을 표해 왔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면 새로운 시장에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지며,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근로 의식이 해이해지고, 생산성이 낮은 데 대해 보상을 해 주며,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들의 자립 의욕을 꺾는다고 생각한다.

- 제리미 리프킨,『유러피언드림』

## (자료 3)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훌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의 전 국민에 적용된 1988년 이후 대형 민간병원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급성장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전이었다. 공공병상은 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시장성이 열악한 영역이나 병상확보가 어려운 낙후지역에만 마련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공공병원의 낙후로 인해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와 의존도가 증가하였다. 더군다나 수의창출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현상은 가속화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진료비는 급증하였다. 2006년 비급여 진료비는 4조 3,000억 원이었지만 2010년 8조 3,000억 원으로 1.9배나 늘었다. 이에 반해 2005년 13.6%였던 공공병상의 점유율은 지난해 10.0%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평균(75.1%)의 7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병원의 주된 이용 환자는 장애인 및 노숙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과 저소득층들이이다.

- 〈OO일보〉 기사 일부 수정

(자료 4)

“십만 원 가까이 벌릴 수 없을까요!”

밀도끌도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중략)

“빌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을,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 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 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별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당신 아내를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을 때 이미 눈치를 챘 모양이었다. (중략)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턱 늘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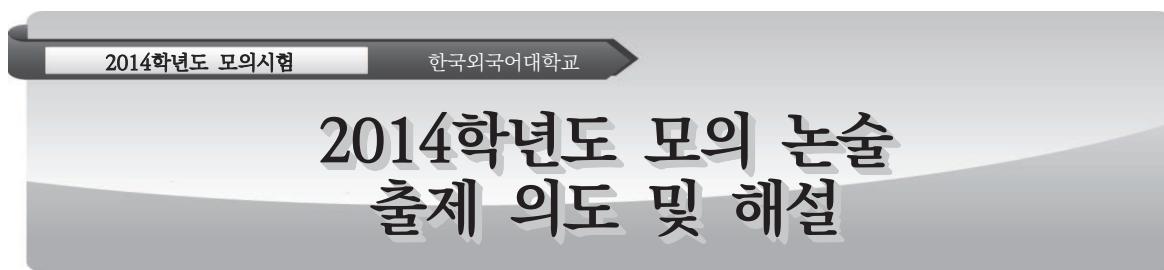
“오선생, 아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 윤홍길, 「아홉 콜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3)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4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수행주체가 국가 혹은 시장인지의 여부를 핵심 논제로 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구성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제시문〉과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들이다. [문제]는 〈제시문〉과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과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능력,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분석하는 통합적인 사유 능력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제시문〉 두 개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제시문〉을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문 〈제시문〉은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한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영문 〈제시문〉과 국문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영문 〈제시문〉은 Trever Sather ed.의 Pros and Cons와 Anthony Giddens의 The Third Way이다. 국문 (자료)는 빅 조지와 폴 월딩의 『복지와 이데올로기』,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드림』, 윤홍길의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등에서 가져온 내용이다. 인용한 〈제시문〉과 (자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고, 문제를 위해 원문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둔다.

#### -각 제시문의 요지-

〈제시문 A〉는 Trever Sather ed.의 Pros and Cons에서 발췌 및 변용한 것으로 사회복지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의 영어 지문이다.

〈제시문 B〉는 Anthony Giddens의 The Third Way에서 발췌한 것으로 사회복지는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영어 지문이다.

(자료 1)은 국가가 사회복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가 역사적인 사회병리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성장과 생산에 있어 재분배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글이다.

(자료 2)는 미국인들이 가장 공평한 수단이 시장임을 믿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학자와 공직자들이 유럽식의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자료 3)은 국내 일간지 기사에서 발췌한 글로서 우리나라 의료 정책이 공공병원을 홀대함으로서 민간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가 급증했으며,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의료 혜택

이 점점 줄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4)는 윤흥길의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발췌한 글로서 실업자인 대학 졸업자가 아내 출산을 위해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서술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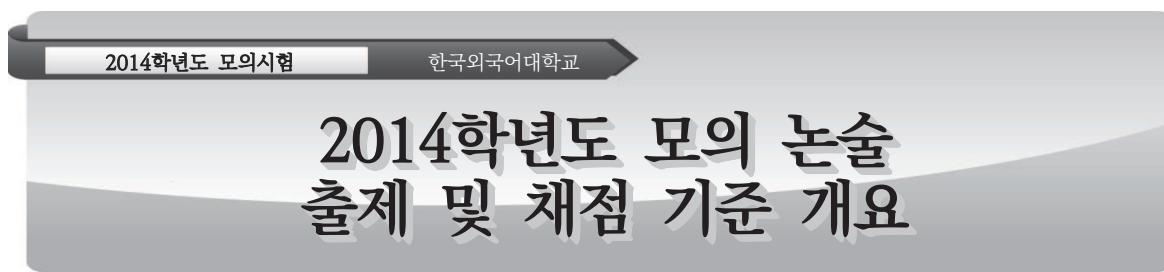
#### 〈2014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방향〉

- 내용적 측면 :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연구(language studies)를 내용요소로 그대로 유지한다.
- ② 새로운 출제 지침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외국어, 사회탐구 지문을 활용한다.
- ③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한다.

- 형식적 측면 :

- ① 제시문 두 개를 모두 영문 지문으로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을 핵심어(key word)가 아닌 핵심 논제를 찾아내는 것으로 구성한다.
- ③ 세 번째 문항을 수험생의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시문 A〉

출처 : Trever Sather ed., Pros and Cons

〈제시문 B〉

출처 :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자료 1) 빅 조지와 폴 월딩, 『복지와 이데올로기』,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자료 2) 제러미 리프킨, 『유러피언드림』

(자료 3) 국내 일간지 기사

(자료 4) 윤흥길,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 영어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우리말 번역

〈제시문 A〉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다. 국가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의료보험, 실업급여, 노후연금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것들은 인간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들이다. 그러한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서비스는 국가의 자산이며 따라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사회가 그 구성원들 각각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표시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을 위한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시장이 복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신화이다.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제시문 B〉

국가에 의한 증가하는 복지비용은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왜곡시킨다. 사회복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시장은 번성하도록 놓아두어야 하며 국가의 개입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장의 미덕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도 포함한다고 말해지고 있다. 의료보험, 교육, 그리고 연금의 민영화는 시장에 경쟁을 가져오며, 그것은 더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가져다준다. 그 자체로 놓아둔다면, 시장은 사회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시장은 국가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다. 최소국가론은 시장이 자생적 메커니즘이라는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제 1]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공통 논제를 우리말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80점/최저 점수 60점]

■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논제 :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수행주체가 국가 혹은 시장인지의 여부.

■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

<제시문 A>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인간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 각각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표시이다. 시장이 복지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제시문 B>

사회복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으며 시장의 미덕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분배도 포함한다. 의료보험, 교육, 그리고 연금의 민영화는 시장에 경쟁을 가져오며, 그것은 더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가져다준다. 시장은 국가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다.

■ [평가지침]

본 문제는 사회복지의 수행주체를 둘러싼 상반된 두 입장을 담은 제시문에 대해 공통의 논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각 입장의 논지를 요약해야 한다. 좋은 답안의 작성 핵심은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논제를 먼저 파악한 뒤, 각 제시문들에 나타난 상반된 논점을 찾아 요약 작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라는 주제는 이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및 도덕 교과서 등에 등장하는 주제로서 수험생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가 주도에 의해 복지 정책과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하고 있어서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주제를 파악하고 요약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채점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점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다. <제시문 A>는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제시문 B>는 사회복지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으며 시장은 국가보다 사회안전망으로서 더 잘 기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본 문제는 그 나이도가 고등학교 영어영역 문제의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수험생들의 공통 논제 발견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80점)	공통적인 논제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
B (75점)	공통적인 논제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각 제시문의 요지를 불명확하게 서술한 것.
C (70점)	공통적인 논제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제시하였으나, 각 제시문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D (65점)	공통적인 논제를 부정확하게 제시하였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60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 수험생,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제시문 A>와 <제시문 B> 가운데 (자료 1)과 (자료 2)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을 각각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각각 분석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 100점/최저 점수 70점]

#### ■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국가가 사회복지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가 역사적인 사회병리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적 성장과 생산에 있어 재분배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는 글이다.

(자료 2)

미국인들이 가장 공평한 수단이 시장임을 믿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학자와 공직자들이 유럽식의 관대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왔음을 설명하는 글이다.

#### ■ <제시문 A>를 활용한 (자료 1)의 분석

<제시문 A>는 사회복지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 1)를 분석할 때 기본 논조는 ‘국가에 의한 복지 추구’가 되고, 구체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국가에 의하여 1) 사회병리현상 해결, 2) 경제적 성장과 생산의 분배, 3)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설명해야 하고, 시장에 의한 복지사회 추구의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 ■ <제시문 B>를 활용한 (자료 2)의 분석

<제시문 B>는 사회복지는 시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영화는 보다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사회복지 제공할 수 있고, 정부에 의한 복지 정책은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는 것이 주된 관점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자료 2)는 미국인들이 가장 공평한 수단이 시장임을 믿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학자 및 공직자들이 유럽식의 관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불만을 표현하고 있음이 <제시문 B>와 공통된 논조임을 서술하면 된다.

■ [평가지침]

이 문제는 우선 <제시문 A>와 (자료 1)를 연결하고, <제시문 B>와 (자료 2)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후 <제시문 A>의 국가주도의 사회복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료 1)의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추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 1)에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B>의 시장주도의 사회복지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료 2)의 시장을 중시하는 미국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본 문제의 초점은 서로 다른 지문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채점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기본논제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다.

본 문제는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지문을 비교하여 공통 논제가 다른 지문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변용되는지를 발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100점)	<제시문 A>와 (자료 1)을 연결하고, <제시문 B>와 (자료 2)를 연결해야 함. 국가에 의한 복지추구를 (자료 1)의 사회병리해결, 재분배, 지속가능성과 연결하여 분석해야 함. 시장에 의한 복지추구가 미국적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함.
B (90점)	<제시문 A>와 (자료 1)을 연결하고, <제시문 B>와 (자료 2)를 연결하였으나, (자료 1)과 (자료 2) 중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
C (80점)	<제시문 A>와 (자료 1)을 연결하고, <제시문 B>와 (자료 2)를 연결하였으나, (자료 1)과 (자료 2) 모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
D (75점)	<제시문 A>와 (자료 1) 그리고 <제시문 B>와 (자료 2)를 연결하지 못하고, (자료 1)과 (자료 2) 모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
F (70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 수험생,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3] <제시문 A>와 <제시문 B>를 활용하여, (자료 3)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 [배점 120점/최저 점수 80점]

(자료 3)

‘00일보’를 수정한 기사의 일부로서,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공공병원 훌대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음. 공공 병원의 낙후는 민간병원 의존을 증가시켰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졌음.

(자료 4)

윤홍길의 「아홉 결례의 구두로 남은 사내」의 일부로서, 대학까지 나온 인물의 실업과 열악한 생활 조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 <제시문 A>, <제시문 B> 활용 <자료 3> 분석

<자료 3>은 우리나라 의료 정책은 공공 병원을 훌대해 왔으며, 그 결과 공공 병원의 낙후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 병원에 대한 의존도 상승, 진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 병원의 주된 이용 환자는 의료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들과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시문 A>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는 의료보험, 질병에 대한 지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료 3>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 병원의 낙후와 감소, 의료비 증가 등은 결과적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그러한 지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제시문 B>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회 복지는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같은 시장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시문 A>에서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

이 소설에서는 대학을 나오고도 가난하게 사는 실업자 문제와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체계의 미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그’는 대학을 나왔지만,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막별이,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로 어렵게 생활해 나가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물이다. 따라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위해서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대학까지 나온 인물의 실업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보험이나 질병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적 상황을 보여준다.

### ■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료 4)의 고학력 실업자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보험 및 질병에 대한 지원이 시장을 통하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때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논지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에 의한 전 국민 의료 보험 시행, 산모들의 출산을 국가에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행, 실업자에 대한 실업 급여 시행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 ■ [평가지침]

<제시문 A>에서 시장은 사회복지를 위해 국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며 결국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는 의료보험, 질병에 대한 지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 B>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활용하여, (자료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로 저소득층 등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 병원의 낙후와 점유율 하락, 민간 병원에 대한 의존도 상승, 진료비 증가 현상이 <제시문 B>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힘에 의한 사회복지,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문제가 있음을 부여 주고 있으며, 반면에 <제시문 A>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복지, 국가에 의한 질병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설득력이 있음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고학력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혹은 질병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문 A>, <제시문 B> 그리고 이를 활용한 (자료 3)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것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제시문 A>와 <제시문 B>에서 (자료 3)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 A>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을 통해 성취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는 의료보험, 질병에 대한 지원 등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제시문 B>에서 사회복지는 시장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특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이러한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료 3)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병원의 낙후와 점유율 하락, 민간 병원에 대한 의존도 상승, 진료비 증가 현상이 <제시문 B>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장의 힘에 의한 사회복지, 의료 보험의 민영화에 문제가 있음을 부여 주고 있으며, 반면에 <제시문 A>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 복지, 국가에 의한 질병에 대한 지원 강화가 설득력이 있음을 분석해야 한다.

세 번째,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료 4)의 고학력 실업자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의료 보험 및 질병에 대한 지원이 시장을 통하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때 사회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논지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120점)	(자료 3)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3)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
B (110점)	(자료 3)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료 3)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C (100점)	(자료 3)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자료 3)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D (90점)	(자료 3)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문 A>와 <제시문 B>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 3)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4)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
F (80점)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 수험생,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